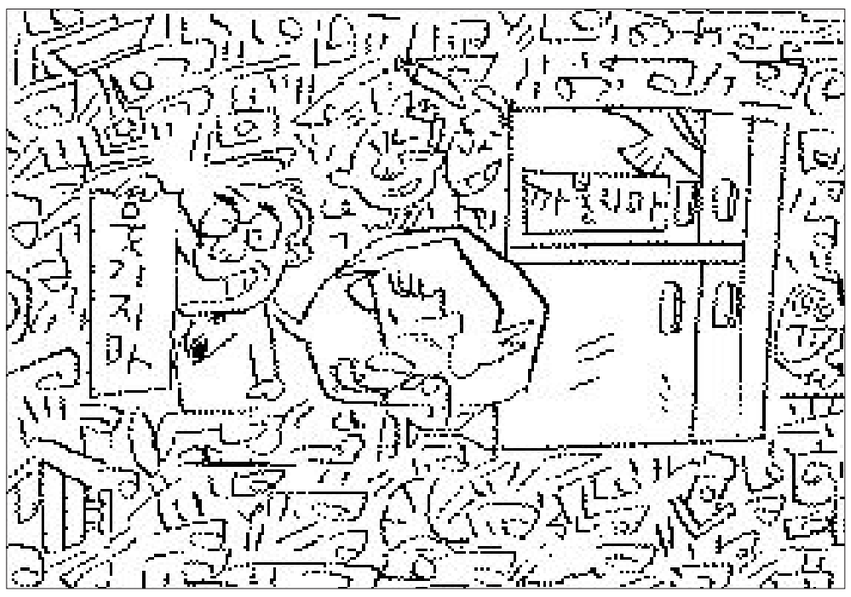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96 >



찾아보세요 양주잔, 새집, 다리미, 은행잎, 고추, 송사리, 화살, 병따개, 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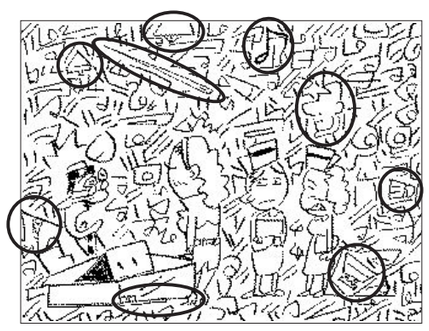
까불지마~!

아내가 친정엘 가면서 냉장고 문에 '까불지마'라고 메모를 붙였다.

'까'는 까스조심 하고
'불'은 불조심 하고
'지'는 지퍼를 함부로 내리지 말고
'마'는 마누라에게 전화 하지 마라.

이를 본 남편, 그 즉시 메모를 떼어내고 대신 '웃기지마'라고 붙였다.

그 뜻인즉(아내가 친정엘 가고 없으니)
'웃'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 기분이 너무 좋고
'지' 지퍼 내릴 일도 많아지고
'마' 마누라에게 전화 할 시간 없네.



지난주 정답

다리미, 칫솔, 음표, 열대어, 팽이, 사람 옆 얼굴, 종이배, 바늘, 셔틀콕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김영미〈광주시 동구 동명동〉 김도현〈광주시 서구 풍암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광주, 직할시 승격…웅비의 나래 펴다

지난 1986년 10월 광주는 축제 분위기였다.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비롯한 도심 곳곳에는 경축 현수막이 나붙었고 애드벌룬이 뜨고 대형 선전탑, 꽃탑이 설치됐다. 모두 '광주직할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것들이다.

당시 언론들도 '무등벌의 번영, 힘찬 첫발', '새출발 광주는 설렌다', '직할시 광주, 웅비의 나래를 펴다' 등의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다.

지난 1986년 '직할시 승격' 기념 선전탑 등이 설치된 광주시 백운광장 일대.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는 지난 1986년 11월 1일 전남도 광주시에서 광주직할시로 승격됐다. 지난 1935년 광주시로 승격된 이래 49년 시로 개칭됐다가 37년만에 직할시가 됐다.

달라지는 것도 많았다. 우선 종전에는 정부와 도의 2중 감독과 지도를 받았으나 정부의 행정지도를 직접 받게 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격상되면서 자체의회를 구성하는 등 기구가 확대됐다. 또 직할시 승격으로 자체 수입 전부를 고스란히 갖게 됨으로써 재정 자립도가 증가하게 됐다.

직할시 승격은 부산·대구·인천에 이어 네번째다. 그만큼 시민들에게는 "직할시민이 됐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직할시로 승격된 1986년 광주 인구는 92만8천851명. 도로에는 2만6천745대의 자동차가 돌아다녔다. 납세액은 하루치로 계산해보면 국세 212원과 지방세 89원을 합쳐 301원꼴을 세금으로 냈다.

기대도 컸다. 이를 계기로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시민들은 '광주가 호남권의 성장 거점도시, 더 나아가 생산도시로서 그몫을 다해야 한다', '예향 광주가 꽉 차도록 문화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힘을 쏟고 고도 산업 육성을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는 1986년 11월 1일 '광주의 직할시 승격'에 맞춰 '직할시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본보에 게재됐던 시민들의 목소리다.

그로부터 20년이 넘었다. 지난해 말 광주 인구는 140만7천798명으로 20년전에 비해 48만명이 늘었고 자동차는 44만9천911대로 20배가 넘게 급증했다.

20년 전 광주시민들의 바람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87. 교육인적자원부가 법조인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원의 첫 해 총정원안을 2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최근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9학년도 총 정원을 2천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학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로스쿨 ②의학전문대학원
③치의학전문대학원 ④약학전문대학원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31일(음 9월 21일 戊戌)

子 36년생 두드리라 그러면 열림. 48년생 맛있는 음식은 나누어 먹어라. 60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옴. 72년생 옛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잡음. 84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면 큰 일을 도모. 행운의 숫자:16,27

丑 37년생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49년생 주변의 달콤한 말은 믿지 말라. 61년생 다투면 손재요 양보하면 득. 73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 85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하면 실이 되니 돌아가면 재물이 생김. 행운의 숫자:22,42

寅 38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50년생 실물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62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74년생 오늘은 귀를 막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09,39

卯 39년생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51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 손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63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해결된다. 75년생 처음은 괴롭지만 나중은 행운이 다가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10,30

辰 40년생 불필요한 구매로 과소비가 있을 수 있다. 52년생 작은 것은 소중한 것이니 작은 것부터 잘하라. 64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76년생 현실성이 없는 일을 일찍 포기해야 대손이 줄어든다. 행운의 숫자:03,43

巳 41년생 어른의 지혜를 보여줘라. 53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리면 손재가 크다. 65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멀리 찾지 마라. 77년생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덕을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13,23

午 42년생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54년생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66년생 평범한 것이 좋은 것이다. 78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운의 숫자:05,26

未 43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앞만 보고 가라. 55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보라 만족하리라. 67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79년생 쓸데없는 걱정은 버려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3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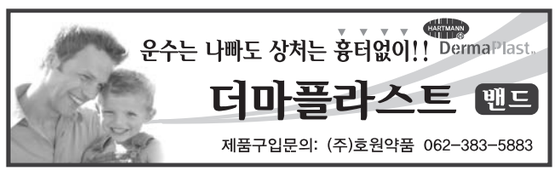
申 44년생 불연이면 이별할 수도 있으니 가정불화는 피하라. 56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긴다. 68년생 바뀌달린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하리라. 80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17,28

酉 45년생 추억은 아름답지만 과거에 억매이지는 말아야 한다. 57년생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69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81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1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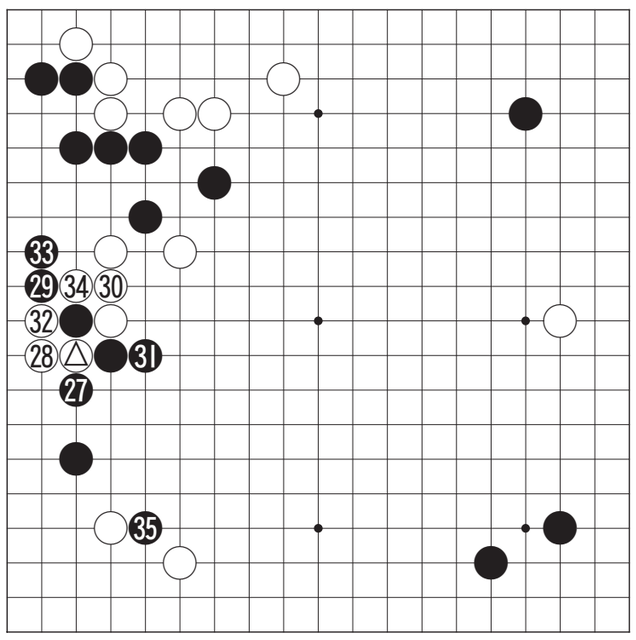
戌 46년생 돈은 생기나 소비가 크다. 58년생 득도 많고 실도 많은 날이니 마음을 비우라. 70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면 마음이 평안하리라. 82년생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이니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34,35

亥 47년생 아침은 무력하나 오후는 활발해진다. 59년생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하면 용기가 생기리라. 71년생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친구가 많으리라. 83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24,4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바둑소식



제1회 광주시 바둑협회 회장배 바둑대회 최강부 결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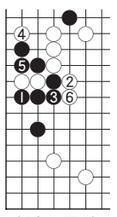
치열한 힘겨루기 3보(27~35)

白 심재욱 6단 黑 선계성 6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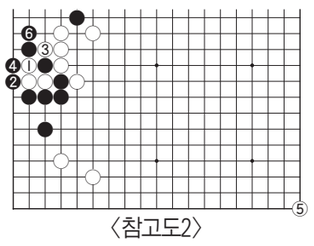
심재욱 6단은 재치있는 접근전 플레이가 장기다. 반면 선계성 6단은 힘을 앞세운 공격형으로 일발장타의 파괴력이 일품이다.

백 △로 끊어 초반 주도권을 잡기위한 치열한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다. 선계성 6단이 흑 27로 몰고 29로 두었을 때 백 30으로 가만히 이은 것이 정중동의 수법으로 호수였다. 이 수로 성급하게 어디든 단수를 치는 것은 상대의 책략에 말려들게 된다.

흑 31이 강수였다. 이수로는 '참고도1'로 두면 무난하나 2로 한방 얻어맞는 것이 싫은 것이다. 백 4로 '참고도2'의 1로 단수치면 흑 2로 되모는 수가 호수로 6까지 백의 실패다. 백 34까지는 이런 정도인데 느닷없어 보이는 흑 35는 무슨 뜻일까?



〈참고도1〉



〈참고도2〉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조혜연·김은선, 원양배 첫승

한국의 조혜연과 김은선이 원양부동산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대회 1회전을 통과했다.

조혜연과 김은선은 지난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 대회 1회전에서 각각 중국의 왕상원과 펑원을 불계로 꺾고 2회전에 진출했다.

반면 현미진과 박소현은 중국의 리춘화와 정옌에게 고배를 마셨다. 가장 많은 기사들이 참가한 중국팀에서는 예꾸이, 쉬잉 등 4명이 1회전의 관문을 통과했다.

원양부동산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대회의 우승상금은 10만위안(1천 200만원)이며,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 덤은 7집반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굿모닝 잉글리쉬 <1023>

Who is this?

누구실까?

A : Hello, Is Judy there?
B : Yes, this is her. 쫴 is this?
A : It's Greg.
B : Oh! Greg. How are you?
A : Fine,Thanks. What are you doing now?
B : I'm listening the radio and reading the newspaper.

A : 여보세요, 주디 있습니까?
B : 네, 전데요? 누구실까?
A : 그랙이야.
B : 아! 그랙. 잘 있었어?
A : 음, 지금 뭐하는데?
B : 라디오 켜놓고 신문 읽고 있어.

* Is Judy there?
= May I speak to Judy?
= Can I talk with Judy, please.
* How are you?
= How's everything? = How do you do?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023>

眠気(ねむけ)が襲(おそ)って來(き)ちゃって

졸음이 쏟아져서…

A : 高木(たかぎ),うとうとしてどうしたの。先生(せんせい)がこっち見(み)てるよ。
B : いけない。急(きゅう)に眠気(ねむけ)が襲(おそ)って來(き)ちゃって
A : また朝(あさ)までゲムしてたでしょう。
B : 当(あた)り。一度(いちど)始(はじ)めたら, 辞(や)められなくなっちゃうんだ。

A : 다카기, 꾸벅꾸벅 졸고 왜그래? 선생님이 이 쪽을 보고 있다구.
B : 안돼.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서…
A : 또 게임으로 밤을 샌거구나.
B : 정답.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서 말야.

うとうとする : 꾸벅꾸벅 졸다
いけない : 가망이 없다, 그르다
眠気(ねむけ)が襲(おそ)う : 졸음이 쏟아지다
辞(や)められなくなる : 그만 둘 수 없게 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213>

说话要算数

말 한 것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A: 说话要算数啊。
Shuōhuà yào suàn shù a。
B: 当然算数啦，诸位都是老客户。
Dāngrán suàn shù la, zhūwèi dōu shì lǎo kèhù。
A: 我们公司也很讲信用。
Wǒmen gōngsī yě hěn jiǎng xìnyòng。
B: 我们彼此都讲信用。
Wǒmen bǐ cǐ dōu jiǎng xìn yòng。

A: 말한 것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B: 당연하 책임집니다, 여러분 모두 단골 손님이시잖아요.
A: 저희 회사도 매우 신용을 중시합니다.
B: 우리 모두 피차 신용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算数 [suànshù] 책임을 지다
讲信用 [jiǎngxìnyòng] 신용을 중시하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7~8

한자 이야기 <640>

老馬之智(노마지지)

늙을 로, 말 마, 어조사 지, 지혜 지

노마지지(老馬之智)는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으로, '경험을 쌓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를 비유한다.

전국시대 제(齊)나라 환공(桓公)은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유명한 명재상 관중(管仲)과 대부(大夫) 습붕과 함께 고죽국(孤竹國, 현재 하북성)을 정벌하러 갔다. 봄부터 시작한 전쟁이 겨울이 되서야 끝나는 바람에 지름길을 찾아 돌아오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전군(全軍)이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져 떨고 있을 때 관중이 말하길 "늙은 말의 지혜를 이용할 만하다(老馬之智可用也)"하고, 즉시 늙은 말 한 마리를 풀어 놓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 큰길을 찾을 수 있었다.

또 한 번은 산길을 행군하다가 식수가 떨어져 전군이 갈증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습붕이 말하길, "개미는 겨울이면 남쪽에 살고 여름이면 산의 북쪽에 살므로 개미집의 높이가 한 치라면 그 지하 여덟 자를 파면 물이 있다"고 하여 파보니 과연 물을 얻을 수 있었다.(韓非子, 說林)

이것은 관중과 습붕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오히려 늙은 말과 개미를 스승 삼아 배웠다는 일화이다. 참다운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배워서 보충할 줄 아는 것이 아닐까?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